

GaHee PARK

I Feel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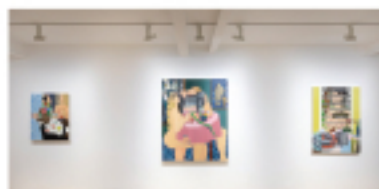
December 2019



I FEEL YOU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아티스트 박가희는
커플의 친밀한 사생활을 그린다.
그들이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을.

이번 전시 제목이기도 한 'We Used to be Fish'라는 회화 작품에는 그녀의 작품에서 늘 등장했던 소재들이 총출동한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남편과 와인 한잔하면서 구급약을 하다가 모든 생명체는 수만 년 전 바다로부터 왔다. 우리는 원래 물고기였다는 과학 기사를 봤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나는 그렇다고 우겼다. 저녁 내내 이 주제로 장난 섞인 논쟁을 벌였는데 그게 발전해서 그림이 됐다. 내 작업 과정은 어제 있었던 일과 뉴스, 미술사적 주제 등 매우 다양한 것에서 영감을 받은 드로잉에서 시작한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갖고 놀다가 때가 되면 패턴으로 발전시킨다. 거의 모든 그림에 감이지 혹은 고양이 등장한다.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지만 모성애는 많은 사람이라 그림 친구나 동물에게 쏟아붓는다. 모든 동물을 사랑하고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기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림에 등장하는 것 같다. 친밀한 커플이 개인 공간에서 감각적, 육체적, 감정적 만족감을 느끼는 장면이 제시된다. 그리고 그들은 나체이다. 백인 남자인 폴 고갱이 타히티에서 원주민 소녀들의 누드를 그린 작품을 보면서 절심했다. 그가 여자의 몸을 타자화했다면 여자인 내가 내 벗은 몸을 그려줬다고. 여성의 즐거움, 특히 성적인 희열을 표현하는 것이 티부시엔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그것을 표현해 보자고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뉴욕을 비롯해 전 세계 미술계에서 그런 티부와 타자화를 하물려두고 노력하는 추세와 동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다. 그림에서 손가락도 눈에 띈다. 가제트 만능 팔처럼 유연하게 뻗어 나와 테이블 아래에서 생기를 옮겨주고 있거나 고양이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3D에 미국에 가서 원할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내 의견을 100% 전달할 수 있게 된 자금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동양인 여자를 무명인처럼 대하는 사선을 받으면 원치 않았음에도 관음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관찰하게 된다. 다소 과기스러워 보이는 손은 그런 상황에 대한 저항을 완고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인 여자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라는 편견에 대항하는 의미도 더해져서, 우리도 열망의 대상을 향해 손을 뻗어 옮겨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1인용인포메이션 에디터 박가희의 국내 첫 개인전 <We Used to be Fish>는 제로원서에서 11월 25일까지 열린다.**



2

1 박가희 Early Supper, 2019
2 제로원서에서의 전시전경
3 박가희 Cocktail, 2019



EXHIBITION



수놓다를 기묘한 데리움
1900년생으로 2000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했던 그의 세계가 전시장에 드넓게 펼쳐진다. 다양한 재료뿐 아니라 세롭게 고안한 스프레이 기법을 선보인 것이 연작을 출시할 것. 전시 타이틀과는 별개로 아를 담다는 감성이 당신을 재빨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 K2, K3



SHOCK 커미언 프로젝트 그네시움지
현대사 회에 굶은 어떤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디스토피아 전위관과 독일 국회의사당에 경구를 쓰아 올리는 작업을 수십년 간 해온 제니 홀러라엔 그림을 알고 있을 것이다. 11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는 '로보틱 LED 기둥'이 국문과 영문이 새겨진 조각은 과천관 야외 공간에 설치된다.



사실성에 기반한 낭만적 환상
영양에 관하여는 유리병을 한 병을 기울여서 바라는 영감이 있는지? 유리병과 세계 사이에서 지우는 수만큼 연수를 구운다. 탐구해 온 허영신의 개인전. 물성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병과 그림을 투과하는 빛과 색채를 극사실주의 회화, 재현해 냈다. 전시는 예술의 경이에서 11월 1일까지 **104동**